

# 간호의 기본 원칙 (I)

## 이 송 희

### 머 리 말

國際看護協議會(ICN)는 장구한 역사와 널리 세계 각국에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종활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99년의 設立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최초의 목적은 순수한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ICN의 회원으로 가입한나라들의 看護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일, 그리고 아직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은 교육, 법률제도 및 전문직업적 단체조직을 통해서 그 나라의 看護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ICN은 1947년 看護業務委員會 (Nursing Service Committee)를 임명하고, 1958년에는 ICN 본부에 看護業務部 (Nursing Service Division)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간호업무부에 대하여 간호업무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업무위원회는 과거에 그 활동의 하나로서 각국의 간호협회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看護의 특수한 면을 연구하고 그 특수한 면에서의 간호에 대해서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고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확신을 얻었는데, 그것은 환자의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어떤 상태에 적절한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여 醫學이 專門化한다고 할지라도 간호가 치료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며 또 질병의 회복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간호의 기본원칙이 있다는 확신이며, 이 확신은 ICN에 의해 수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ICN이 著作과 研究活動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간호원인 Miss Verginia Henderson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금번에 출판된 “간호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f Nursing Care)은 그녀가 ICN의 간호업무위원회를 위해서 저술한 것으로서 그녀의 간호에 대한 진정한 理解와 더불어 명철한 思考力과 表現能力의 덕분으로 그 출판이 발달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組織體와 基礎看護教育의 종합적배경은 그 나라의 社會的發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도 좋은 간호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간호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 간호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자극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며 간호원들은 가능한 최선의 간호를 하도록 고무되기를 기원합니다.

“醫學이 고도로 발달하고, 반면에 간호가 발달하지 못한 여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상태가 의학의 발전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WHO의 제1회 간호전문위원회의 보고서의 이 말은 우리를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또 그 평가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경향과 변화에 균형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기본원칙”의 책자가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의 有用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註 1) World Health Organization Expert Committee on Nursing.

Report of the First Session, February 1950

Daisy C. Bridges, C.B.E., R.R.C

Florence Nightingale Medal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1948~1961

## 序 論

이 소책자에는 基本看護를 구상하고 있는 활동들의 개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든 인간의 욕구에 기본을 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간호원이 돌보는 환자의 특수한 상태에 따라서 이와같은 기본적 욕구가 변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호원의 계속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의 의도하는 바는 醫師의 診斷이나 그리고 그가 처방하는 치료가 무엇이든지간에, 물론 그 兩者가 모두 간호원이 창안하고 실천하는 간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간호에 대해서 기술하려는 것이다. 여러가지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자기나라의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 제시한 기본간호는 가정, 병원, 학교, 공장등 어떠한 장면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人間の 욕구에서 추출된 이 간호의 원칙은 疾病치료사업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서도 지침이 될 것이다. 그 원칙은 간호원이 건강한 妊婦를 지도할 때에도, 高熱을 인해서 쇠약해진 환자를 간호할 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책자는 근본적으로 간호원이 각 개인에게 주는 도움에 대한 기술이므로 그 중점은 病者나 身體障害者에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사람보다도 간호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며, 사실상 “기본간호”는 주로 病者나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인 것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보건활동을 하는 기관에 있는 간호원들은 이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간호활동과 같은 각 개인에 대한 육체적인 간호나 정서적인 支持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 공장 그리고 지역사회 방문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원들도 이 기본간호의 원칙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이나 가정에서의 독간호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업무에도 적

용된다는 것을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모든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증진이 환자에 대한 간호와 병합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들이 소위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실천건강법”을 잘 받아드리는 시기는 그 가족내에 진요한 필요가 있을때 즉 가족중에 환자가 있을때 간호를 해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았을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여튼 누구든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려는 사람은 도우려고 노력하는 간호원이면 이하에 기술되는 간호의 내용에서 유용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간호원 자신이 건강의 좋은 모범을 보일수록 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기 기술한 기본간호는 건강한 어머니를 돌보는 조산원이나 자기 자신의 육체를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정신과의 간호원이나 또 환자가 적어도 어느 일정기간은 거의 전적으로 육체적 간호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있는 간호단위에 있는 간호원들에게도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원을 “그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간호직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도 훨씬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 직업에 있어서의 남성간호원들의 직무수행의 가치들 여성간호원들의 그것보다 낮춰 평가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둔다.

### 1. 基本看護에 관계된 간호원의 獨自的 機能에 대하여

기본간호는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福祉활동도 마찬가지로 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원이 올바르게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간호는 무엇인가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간호원의 직무의 정의(定義)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자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정의는 간호행위와 관련된 법률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법률을 비판하는 일은 이 책이 의도하는 범위 밖의 일이지만 간호에 관한 여러가지 문헌을 보면 그 정의는 막연한 것이든지, 혹은 포괄적(包括的)인 것이든지, 더우기 때때로 간호원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던지 한다. 간호원의 역할은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사이에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간호원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입장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환자의 곁에 간호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그 간호원은 醫師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사회사업가 또는 물리치료사의 역할도 하며 때로는 명백하고도 시급한 환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料理士와 鋤管工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간호원은「직업적인 어머니」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이름과 같이 보통의 어머니가 자기 이해의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때에 따라서 전혀 異質의 일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를 包括한 기능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기능종의 어떤것이, 즉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욕구중의 어느것을 간호원이 다른 직업인들 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일반사람들이 믿고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여 주지 않고 있다.

醫師는—診斷, 豫後 그리고 치료에 뛰어난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醫師의 독자적인 기능이다. 그러면 간호원은 어떠한 점에서 拔群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간호원은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미국의 저명한 간호원인 Annie W. Goodrich는 종종 “건강한 市民”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간호원의 공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공헌은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간호원은 소위 “의료팀”에 없어서는 안되는 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무리 “팀활동”이 발달하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많은 여러가지 기능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각 개인이라는 것은 역시 특별한,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다.

팀의 한구성원은 팀의 다른 구성원들 보다도 어떤 기능수행에 있어서는 더 적절하게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각 전문가들이 자기가 초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분명히 하여 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간호원의 본질적인 독자적 기능, 즉 간호원이 스스로의 창의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 기능에 한해서는 간호원이 가장 탁월한 것, 이것에 관해서 以下에 기술하려고 한다.

오늘날까지, 간호의 독자적 기능에 관한 극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著者は 간호원의 독자적 기능이라는 것을 둘러싼 자신의 개념을 여기에 기록한다. 이것은 저자가 저술한 책2) 에서 引用하였으며 다음 章에서 논의하는 내용도 이 책에서의 引用이라는 것을 尙記하여 둔다.

「간호원의 독자적 기능은 건강, 불건강을 불문하고 각개인을 돕는데 있다. 어떠한 점에서 돕는가하면 건강생활, 건강에의 회복(혹은 평화로운, 즉업으로의 길), 즉 이러한 것은 만일 그 本人이 필요한 만치의 힘과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속히 자기가 자신의 시중을 혼다쳐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간호원의 직무의 이러한 관점, 간호원의 기능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원은 주도적으로, 지배적으로 움직이어 이 점에서 간호원은 主人인 것이다. 그위에 간호원은 醫師가 주도하는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힘을 빌려주는 일도 한다. 또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건강의 증진을 위해, 혹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즉업으로의 길의 의지를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함에 있어서는 팀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 반대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팀의 일원은 다른 사람에게 과중한 요구를 하여 그 때문에 다른사람이 그사람 독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자기

2) Harmer, Berth and Henderson, Virginia ; Textbook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ursing, 5th ed.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5, pp 4—5.

의 전문적 일에 지장을 일으킬 정도로 非醫療的인 일, 예를들면 세탁, 기록사무, 서류를 철하는 일 따위의 잡일로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팀의 소원은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모두 환자에게 “힘을 빌려주는 일”이 제일차적인 일이라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그 환자와 같이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해하지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또는 참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료팀의 努力은 크게 낭비가 되는 것이다.

환자가 자기 시중을 자기가 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또 지시받은 療法까지 자기가 행할 수 있다는 등, 이같은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체력이나 意志의 힘 혹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완전한” “全體的인” 또 “독립한” 인간으로써 결여된데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도우는 사람으로써의 간호원이라는 생각은 좁은 생각이 아니냐고 보는 경향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하여보면 불수록 이와같이 정의된 간호원의 기능은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身體가 “완전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다. 또 대체 어느 정도까지 건강이 유전의 문제일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학습으로서 몸에 지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論議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知能정도와 교육정도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체로 비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각개의 인간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돕는 간호원의 역할은 더욱 곤란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간호원은 자기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피부 속까지도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호원은 임시적으로 어떤 때에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의 의식이 되어주고,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한 사람을 위하여 人生의 사랑이 되며, 다리를 절단한 사람의 발로써, 또 빛을 잃은지 얼마 안되는 盲人의 눈으로써,

초생아를 위해서는 운동도 하여 주고, 젊은 어머니에 대하여는 지식과 신뢰감을 주고, 때로 몸이 심히 쇠약하여 혹은 소극적 생각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의 대변자로서, 기타의 여러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간호, 정서적인 支持 또 재교육등 각 사람의 일시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욕구를 잡에 충족하는 일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간호를 직업 중 가장 높은 위치에 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간호활동중의 많은 것들은 단순한 것이지만 환자의 특별한 욕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복잡하여진다. 예를들면 건강한 때이면 사람은 전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호흡할 수 있고 간호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肋骨切除를 한 환자결에서 흉곽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體位를 취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呼吸補助器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등에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식사는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만 만일 식욕이 없는 사람의 간호를 하게 되면 그 간호원은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만치의 영양량을 공급하려고 여러가지로 환자를 돕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돕는 일도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강위생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의 구강을 청결히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므로 아주 숙련된 간호원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以上 말하여온것에서, 간호원이 수행해야 할 책임의 제일차적인것은 「환자가 日常생활의 양식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일, 즉 보통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呼吸, 食事, 排泄, 休息, 睡眠과 운동, 신체의 청결, 체온의 保持, 적절하게 옷을 입는것, 등등에 관하여 환자를 돕는일」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위에 간호원은 생활을 더 한층 의의있게 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助力도 한다. 즉 疳交나 學習, 오락으로써의 作業, 또 생산적인 일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간호원은 만일 전

강하고 강한 인간이고 지식도 있고 生命愛에 다  
고 있으면 원조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강섭생법을  
유지하든지 만들어내든지 하는 일도 돕는 것이  
다. 이와같이 친근한, 요구가 많은, 그러나 보  
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간  
호원이 제일 잘 교육되어 있을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그리고도 환자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한 환자에 관계하  
는 간호원의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가  
지고 간호원은 多數의 집단에 대해서는 일을 하  
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곤란하다. 어떤 종  
류의 간호원은 個人에 대하여서보다, 집단에 대  
하여 일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환자 및 자기  
로서는 자신의 시중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적용  
되는 간호원의 기능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감이 있지만 간호원의 기능은 對病活動보다 도  
리어 많은 시간을 '건강진단활동'에 충당하고 있  
는 것은 이미 진술한 바와 같다.

## II 人間の 基本的欲求 및

### 그것들과 基本看護와의 關係

간호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간호  
의 대상이 病者이든지 健康人이든지 간호원은 人  
間 누구나가 가지는 衣食住의 욕구, 사랑하고 사  
람에게 인정받는 일, 社會생활에 있어서의 相互  
依存性, 자기의 有用性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  
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과학자나  
철학자에 의하여 인정되고 同一視된 이와 같은 기  
본적 욕구의 지나친 單純化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打波되어가고 있다. 文化가 다르면 인간의 욕구  
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또 각사람은 각각 자  
기나름으로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또 우리들은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公  
式으로 꼬집어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배운 바 있지만 의연히 해명  
되지 않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위에  
서 말한 이 더한 인간의 욕구에는 인간의 고정  
된 목적이나 行動에 대해서 지침의 역할을 하는  
神이나 倫理에서 만족스러운 信仰을 찾으려 하  
고, 보편적 동경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즉 信仰이 명하는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것으로  
써 神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고 싶  
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욕구에 관하여 기술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動機라는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느끼지 못  
하게 한다든지, 또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그 욕  
구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生類이나 種의 保  
存이라고 하는 自然의 手段과 연결되어 있는 인정  
받고싶다, 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의 生存의 관념보다 강하다는 것이 實證되어 있  
다. 더욱 어떤 종류의 욕구가 다른욕구보다 강  
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예로써,  
남성에 있어서는, 때로는 여성중에서도 衣住의  
연장을 위해 응감스러운 착취의 模형을 감행하  
는 일이 있었으며, 藝術家가 마음에 번적인, 그리  
고 자기가 믿는 眞理나 美를 표현하기 위하여 일  
반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받아도 열심히 일을 하  
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共  
通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그와같은 욕구가 수없이 多樣한  
생활양식에 의하여 충족된다는것, 그리고 그러한  
생활양식에는 같은 것이 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일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간호원이 아무리 현  
명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도 다른 사람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 일도 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간호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간호를 받는  
각자가 느끼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건강을 얻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다 행복한 죽음을 향해 걷는 과정에 공  
헌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다. 극도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 예를들면, 혼수상태라든지 심히 쇠약한 경  
우에 한해서 위에서 말한 경우와 달리 간호원은  
무엇이 환자를 위해서 좋은가를 결정하는 일이 허  
용된다. 섭생법이라는 것도 전혀 그것을 하는 사  
람의 욕구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하게 이끌어나  
가야 하는 것이다. 간호원은 이와같은 관념을 가  
지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상적

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하여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더욱 다른 사람의 욕구를 평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사람의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이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간호하고 있는 인간과의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는 능력은 훌륭한 간호원의 특성이다.

만일 간호원이 환자의 마음속을 통찰하려고 한다면 그는 귀를 기울일줄 알고 언어 이외의 표현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환자의 언어, 침묵, 표정, 동작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고 건설적인 간호원-환자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치료하는 장소에서의 “건설적인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많은 精神科醫나 정신과간호원은 자기자신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精神分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

신분석이 일반간호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간호원의 기능이 주장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기에 대한 인식(자신의 감정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희랍의 훈령인 “네 자신을 알라”와 셰스피어의 포로니우스의 아버지로서의 훈계인 “네 자신에게 진실되라”를 통한 충고는 근대 정신과학교육에 기초가 되는 고전적 표현들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남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기본요소라는 사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하여도 진리인 것이다. 以上과 같이 기본간호를 인간욕구의 분석에서 유래되는 행위라고 본다면, 그것은 모든 경우의 간호에 공통되는 동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공통의 욕구를 갖고 있으나 각사람은 자기 개별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설명하므로 그 욕구들을 그것은 무한히 變容하기 때문인 것이다. 환언하면 기본간호는 어디서든지, 同一視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들로서 成立되는데, 그 요소들은 각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수립되고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산초, 홍근표, 한윤복 편역

## 외 과 간 호 학

<정 가 1,300원  
학생가 1,040원

대한간호협회출판부발행